

일진일퇴 IS... 피바람 부는 이라크·시리아

(이슬람국가)

바그다드 인근 라마디 점령하며 사망자 500명 발생 시리아 팔미라에선 시민 등 300명 사망자 내며 패퇴 美특수부대 IS 고위간부 32명 사살...공습 지원 발표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가 이라크와 시리아 전선에서 일진일퇴의 혈전을 벌이고 있다.

17일(현지시간) 이라크 서부 안바르주(省)의 주도 라마디를 점령했지만, 동시에 시리아 고대 유적도시 팔미라를 시리아 정부군에 다시 내줬다.

◇IS, 이라크 라마디 점령=이미 라마디 시내 대부분의 지역을 수중에 넣고 있던 IS는 이날 오전 라마디 남부 팔라브에서 4건의 차량 자폭 공격을 동시에 펼쳤다. 폭탄 공격으로 팔라브 경찰서장을 포함해 이라크 군정 수백명이 사망했다. 이어진 치열한 교전에서 승리한 IS는 이라크 정부군을 완전히 쫓아내고 팔라브에 있던 이라크군 사령부를 장악했다.

IS가 주정부 청사에 자신들의 검은 깃발을 올리며 승리를 자축한 반면 이라크군이 군용차량과 트럭으로 황급히 시내에서 빠져나가는 장면이 영상으로 공개돼 대조를 이뤘다.

달라프 알-쿠바이시 라마디 시장은 AP

통신을 통해 "최소 250명 이상의 시민과 정부군이 이틀간의 교전으로 사망했다"면서 "이중에는 집이나 거리에서 가족과 함께 몰살된 경찰관, 공무원들이 포함돼 있다"라고 밝혔다.

라마디 전투로 5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주민 8000여명이 피난길에 올랐다.

이라크 군정은 대포, 탱크, 미사일발사기, 소총 등의 무기와 군용차량 30여대를 그대로 놔두고 라마디에서 황급히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라크 최대 주(省)인 안바르의 주도 라마디를 빼앗긴 것은 이라크 정부군으로선 IS 점령지에 대한 탈환작전을 지난해 시작한 이래 최악의 패배라고 할 수 있다.

라마디는 수도 바그다드에서 불과 110km 떨어져 있어 이라크 정부에 직접적 위협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리아 팔미라에서는 패퇴·미군에 간부 사살도=같은 날 시리아에서는 팔미라를 점령한 지 하루만에 시리아 정부

IS, 이라크 라마디 '점령' 선언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 17일(현지시간) 이라크 라마디 전체 점령 주장.



군의 공격으로 다시 이 지역을 빼앗겼다. 전투기 공습과 지역 주민들의 저항까지 겹친 바람에 IS는 1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내고 철수해야 했다. 양쪽 병력과 민간인 피해까지 포함하면 사망자가 300명을 넘는다.

앞서 지난 15일 밤에는 시리아 동부에서 벌어진 미군 특수부대의 기습 지상작전에 석유와 재무를 관할하는 고위 지도자 아부

사야프 등 지도자급 간부 4명을 포함해 모두 32명이 사살되는 타격을 입었다.

◇재탈환 등 치열한 격전 예상=이라크와 시리아 모두 패한 쪽이 재탈환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 더욱 치열한 격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AFP와 AP 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하이드라 알아바디 이라크 총리는 안바르 내 군정에 자신의 진지를 사수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유혈 종파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무릅쓰고 주민 대다수가 수니파인 안바르 주에 시아파 민병대 투입 준비를 지시하는 등 강력한 탈환 의지를 보였다.

이라크군도 성명을 내 "승리는 결국 이라크의 편"이라며 라마디에 대한 전투기 공습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펜타곤)는 성명을 통해 "라마디 전투에 대한 보고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전황이 유동적이고 치열하다"면서 "라마디가 완전 함락된다면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국은 이라크군이 라마디를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전투기 공습 등의 지원을 약속했다.

시리아에서도 퇴각한 IS군이 팔미라에서 불과 1km 떨어진 곳에 진을 치고 있어 언제든지 반격에 나설 가능성이 커보인다.



미국 텍사스주 와코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17일(현지시간) 라이벌 폭주족 사이에 총격전이 벌어져 9명이 숨지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사건 직후 경찰이 출동해 현장을 통제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주먹·칼·총...살벌한 텍사스 폭주족

라이벌 조직간 총격전 발생

27명 사상...보복 등 확대우려

미국 텍사스주 웨이코에서 17일(현지시간) 낮 라이벌 폭주족 사이에서 총격전이 벌어지면서 9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쳤다.

AP·APF통신과 미국 CNN·ABC방송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총격이 정오께 주간고속도로가 지나는 웨이코 변화가의 식당 '트윈픽스'에서 시작됐다고 밝혔다.

식당 화장실에서 다툼이 시작돼 식당 안에서 주먹질이 먼저 오간 후 체인과 칼 등 무기가 동원됐고 곧이어 총격으로 이어져 식당 밖 주차장으로 번졌다. 당시 점심시간을 맞아 식당 안팎에 있던 많은 사람이 총격이 시작된 후 놀라 달

아났다.

사망자들은 모두 폭주족 조직의 일원으로, 8명은 총에 맞아 현장에서 숨졌고, 나머지 1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도중 사망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부상자 18명은 칼에 찔렸거나 총에 맞은 상태이며 부상 정도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부상자 가운데 폭주족 조직원이 아닌 시민이나 경찰은 없는 것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트윈픽스에는 5개의 폭주족 조직에 속한 수백 명 이상의 조직원이 모였다.

경찰은 폭주족들이 총격전에 따른 보복을 위해 웨이코로 몰려올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이날 총격 이후 폭주족 조직원 3명이 상대 조직원에 보복을 가하기 위해 현장에 찾았다 경찰에 체포됐다.

네팔 사망자 8567명

역대 최악 참사 기록

지난달 네팔을 강타한 대지진과 이어진 추가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1934년 지진 당시 사망자 수를 넘어섰다.

17일(현지시간) 네팔 내무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8567명에 이른다.

신두팔축 지역에서만 3423명이 숨졌고 카트만두 1214명, 누와코트 1045명, 다당 728명, 라수아와 579명, 고르카 414명 순이었다.

부상자는 1만6808명, 파괴된 가옥은 75만9000여채로 집계됐다.

로이터 통신은 1934년 지진 당시 네팔 사망자가 최소 8519명이었으며 이번 두 차례의 지진이 네팔 역대 최악의 참사로 가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1934년 1월 카트만두 동부를 강타한 규모 8.1의 강진으로 네팔과 인도에서 1만700명이 사망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수십 코이랄라 네팔 총리는 이날 재건 비용으로 20억 달러(2조1700억원)가 필요하며 국제사회의 도움을 호소했다.



바티칸 성베드로광장에서 17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출신 수녀 2명을 포함한 프랑스, 이탈리아 출신의 수녀 등 총 4명에 대한 시성식이 거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은 심각한 위협...제재 강화할 것”

미 국무장관 방한 기자회견

운병세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18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과 공동 기자회견을 잇따라 갖고 북핵 문제와 함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등 북한의 잇따른 위협에 대한 확고한 공조를 확인했다.

특히 케리 장관은 북한의 잇따른 군사적 도발 위협과 공개처형 등 인권문제를 거론하며 '압력 가중'과 함께 안보리 제재 가능성을 언급, 북한에 대한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케리 장관은 "북한은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을 계속 추구하면서 위협하고 있다. 자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인권을 제 공하지 않는다"면서 "북한의 도발과 핵

프로그램에 대해 한미간 전혀 이견이 없다. 북한은 우리에게 가장 큰 안보 우려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사회는 북한의 여러 악행에 대해 계속 조정을 맞춰야 하고, 압력을 더욱 가중시켜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켜야 할 것"이라며 "한미는 북한의 어떤 위협에 대해서도 완전히 결단력 있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케리 장관은 제재 강화 방법에 대해서도 "지금 다 의논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중국이 아주 구체적으로 북한에 대한 압력을 위해 추가적 조치를 취한 것이 사실이고, 상품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무역 및 국경관련 조치를 취했다"면서 "우리가 보조를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으나, 그런 목적으로 제가 이곳에 왔다"고 강조했다.

임대

목포하당 랜드마크에 개원하실 원장님을 모십니다.
백년대로 기독교병원 맞은편 최적의 중심상권에 위치!
아파트 배후세대가 6,000세대의 대단위아파트 조성!

층별	계약면적(㎡/평)	업종	비고
지하층	1,337(404)	주차장	
1층	1,000(302)	은행, 증권사, 약국, 커피숍	
2층	878(265)	은행, 병원, 커피숍	
3층	1,027(310)	병원, 업무시설	
4층	1,027(310)	병원, 업무시설	
5층	1,027(310)	병원, 업무시설	
6층	1,027(310)	병원, 업무시설	
7층	1,027(310)	병원, 업무시설	
8층	1,027(310)	병원, 업무시설	

※임대료3.3㎡당 27,000원 (1,2층별도문의) 관리비3.3㎡당 8,000원

SL빌딩 임대관리

010-2618-7234
건물주소 목포시 백년대로(상동)

투데이 경매

첨단 상권최고 무인텔
1:1드라이브 인 방식
하루2~3회전가능 객실22개
대지11522㎡ 건물2000㎡
감정가34억5천
최저가24억2천

운암동 공구의 거리 빌딩
6차선 대로변 입지최고
지하1층~지상5층건물
공구, 자재 업체 입주추천
대지220㎡ 건물605㎡
감정가7억4천
최저가4억9천

진월동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임대수익률 좋은 빌딩
병원, 학원 입지최고
지하1층~지상5층
대지845㎡ 건물1343㎡
감정가16억3천
최저가11억4천

담양군 금성면 담양호인근
민속체험장 건물, 요양시설,
전원주택단지개발 추천
대지30308㎡ 건물2916㎡
감정가27억8천
최저가9억9천

투데이옥션 이현석부장 010-9963-6345

NAVER 7244명 단비플라워를 추천했어요

단비플라워

죽아와원3단

근조와원3단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의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농협 (박백성) 302-0316-649511